

# 깨끗한 무주 만들기 동참 눈길

## 지난 20일 무주 대 청결운동 발대식

무주군이 “모두가 하나 되어 깨끗한 무주” 만들기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관내 기관·사회단체와 함께 하는 ‘무주 대 청결운동’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무주군의회 유승열 의장을 비롯한 유관 기관 및 기업, 사회단체 관계자들과 무주읍 이장단 등 주민 5백여 명이 참석했으며 안전교육과 구호제작의 시간을 가졌다.

또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것, △음식을 쓰레기를 줄일 것, △쓰레기를 분리 배출할 것, △물을 오염시키

는 행위를 하지 말 것 등 환경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기 위해 실천해야 할 내용들을 서약서에 담아 공유했다.

황 군수는 “환경을 지키는 일은 누구 하나, 어느 한 단체의 일이 아닌 우리 군 전체, 주민 전체가 공감하고 실천해야 하는 일”이라며 “오늘이 계기가 돼 깨끗한 무주 만들기가 가능해질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각 단체 별로 도로와 하천, 공원, 유원지, 지역명소, 등산로, 등을 담당 구역으로 정한 무주군은 앞으로 2개월에 1번은 전 군민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국토 대청결 운동을 벌인다는 계획으로 효과에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외 폐기물의 무단 투기와 불법소각이 토양과 수질, 대기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홍보하고 농경지 등 사각지역에 대한 환경정화 활동을 벌이며 주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간다는 방침이다.

주민들은 “공무원들이 쓰레기봉투를 들고 청소하는 건 많이 봤는데 오늘 이렇게 각 기관·사회단체, 기업, 주민들까지 한 자리에 모인 걸 보니 당장이라도 말끔해질 것 같은 기분이 든다”라며 “요즘 미세먼지다, 쓰레기 대란이다 심난한데 열심히 동참해서 반딧불이의 고장 무주가 이름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민방위의 날 전국화재대피 훈련

## 관공서 참여 행동요령 숙지

진안군은 화재 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0일 오후 2시 제 410차 민방위의 날 전국화재대피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민방위훈련은 각종 크고 작은 화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고, 반복된 훈련을 통해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을 숙지했다.

훈련은 지정민방위대가 있는 진안군청, 읍면사무소 등 모든 관공서가 참여했으며, 다중이용시설은 시설 관계자 위주로 자율적으로 실시됐다.

군 시범훈련으로 실시된 진안군의료원 화재대피훈련에서는 민방위대원, 진안군, 의료원, 진안119안전센터, 진안경찰서, 자원봉사자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단순 화재대피 훈련이 아닌 화재시 비상벨 울림, 승강기 작동정지, 방화셔터 차단, 소화기 및 소화전 사

용, 피난구조대를 이용한 대피 훈련, 환기구조 등 실제 화재발생 시 꼭 필요한 행동요령 등을 직접 체험해 보고 숙달하는 훈련 위주로 진행됐다.

훈련 후에는 무진장소방서에서 화재발생 시 대피요령, 완강기 사용방법 등에 대한 이론 교육과 함께 완강기 사용방법에 대한 시범과 체험 교육을 실시하여 완강기 사용방법을 숙지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 귀농귀촌 마이스터학교 실용교육 시동

## 1~2년차·예정자 대상

진안군은 최근 지역민과 귀농·귀촌인이 함께하는 귀농귀촌 마이스터학교 실용교육을 시작했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실용교육은 진안군으로 이주 한 귀농귀촌 1~2년차나 예정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초기 귀농·귀촌인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주거지 마련과 일자리 찾기, 농사 준비라는 3대 민원 해소와 함께 원활한 지역 정착 방안을 공유하고 소통하게 된다.

교육과정은 3월에 주거지 마련을 위한 1차 교육이, 8월에 일자리를 찾기 위한 2차 교육이, 10월에는 농사 준비를 위한 3차 교육으로 진행되며, 각 차수마다 3회씩 총 12회로 운영된다.



진안군은 농귀촌 마이스터학교 실용교육을 시작했다.

지난 19일 진행된 1차시 첫날 교육에 25명의 교육생이 참여했으며, 진안군 귀농귀촌 지원정책, 지역정착과

갈등해결, 동향면 봉곡마을과의 워크숍 및 농기계 실습 교육으로 알차게 진행됐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보건소는 결혼 이주여성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집단상담 프로그램인 '감사하기'를 운영한다.

# 스트레스 상황 긍정적으로 바꿔보자

## 진안군, 다문화가정 정신건강증진 집단상담 '호응'

진안군보건소(소장 성을경)는 결혼 이주여성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집단상담 프로그램인 '감사하기'를 운영한다.

진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9일부터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2시간씩 운영된다.

현재 정신건강 지원이 필요한 인원을 선별하고 소집단을 구성했으며 결혼이주여성 15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

두 기관은 지난해 10월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인(남 4명, 여 22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전조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90명(39%)이 전문가의 상담치료가 필요하며 24명(10%)이 정신질환으로 발전 가능한 수준으로 다문화인 50% 이상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하기 프로그램은 스트레스

적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는 생각전환을 통해 심리치료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솔직히 나누며 다른 참석자들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 뿐 만 아니라 부부, 자녀와의 관계, 직업 및 사회생활 등 전반적인 일상생활 적응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정신건강문제 고위험군으로 발견된 다문화인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 에너지의 파급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성을경 소장은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종결된 후에도 후속모임을 지속적으로 가질 예정이며, 호응도가 좋아 하반기에도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역 매아리

### 무주, 치매예방교실 강사 역량 교육

무주군은 20일 이팔청춘 치매예방교실 지역강사 역량강화 교육이 치매안심센터 배움터에서 진행됐다.

치매안심센터 위촉 지역강사와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날 교육에는 한국행복문화예술협회 임숙영 강사가 초빙돼 ‘이팔청춘 치매예방교실’ 4주프로그램에 대한 자체 평가의 시간을 갖고 노하우를 공유했다.

또 경로당 등지에서 활동 가능한 프로그램에 비롯한 다양한 인지활동 교육을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무주군 치매안심센터 황영내 팀장은 “어르신 인구가 많은 우리 군은 치매 걱정 없는 무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보호·치료,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정성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1일 치매안심센터 배움터에서는 실버인공지능(방문학습)지도자 양성과정 수료식이 진행될 예정으로 무주군보건의료원에서는 지난 2월부터 진행했던 교육을 통해 실버인공지능지도자 2급 17명, 실버방문학습지도자 12명을 배출했다.

군은 과정별 우수자 10명을 치매예방 프로그램 지역강사로 위촉·강사로 활용할 계획으로, 지난해 7월 정식 개소해 현재 5백여 명의 치매환자가 보호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제30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개최

장수군의회(의장 김중문)는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 300회 임시회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중문 의장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 추구종합센터 부지 선정 2차 심사를 통과하여 추구종합센터의 장수군 유치에 한 발 더 다가왔다”며 “앞으로 전 군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결집하여 추구종합센터 장수군 유치라는 쾌거를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예산안이 낭비성, 선심성, 불균형 예산은 없는지 세세히 심사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줄 것”을 주문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정복)는 장수군수가 제출 한 당초 본예산(3,406억원)보다 271억원이 증가한 3,677억원(일반회계 3,404억원, 특별회계 273억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유기흥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장수군 묘지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 등 6건과, 장정복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장수시랑사품관리 운영 조례안」 등 4건을 의결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